포스코, 광양에 연간 250만t 국내 최대 전기로 준공

고철 재활용해 쇳물 생산…탈탄소 전환 본격화
실증설비 구축 2030년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도

포스코는 17일 광양제철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권향엽 국회의원, 조계원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장, 정인화 광양시장,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로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제공=포스코

국내 최대인 연산 250만t 규모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기로가 준공, 생산활동에 들어갔다.

포스코는 17일 광양제철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권향엽 국회의원, 조계원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장, 정인화 광양시장,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로 준공식을 가졌다.

총 6000억원의 투자비를 들여 건설한 전기로는 포스코가 국내외 탈탄소 정책에 부응하고 고객사의 탄소저감 제품 공급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난 2024년 2월 착수했다.

단일 설비기준으로 국내 최대규모이며 연인원 27만명이 투입됐다.

준공된 전기로는 스크랩(고철)을 재활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고로 대비 75% 정도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

포스코는 전기로 생산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전기로와 고로에서 생산한 쇳물을 혼합해 정련하는 '합탕(合湯)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전기로 고급강을 '8대 전략제품'으로 선정하고 연구·생산판매를 아우르는 통합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특화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고로 함수소가스 취입, 상저취전로, 탄소감축 원료기술 등 기존의 생산체제에서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브릿지 기술 개발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장인화 회장은 "오늘 준공한 전기로는 단순히 하나의 설비를 추가한 것이 아닌 탈탄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포스코는 글로벌 고객사의 저탄소 강재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감축 요구와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인 '하이렉스(HyREX)'를 통한 탈탄소 생산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신설 전기로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전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저감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를 위해 포항제철소 인근 135만㎡의 공유수면에 오는 2030년 상용목표로 연산 30만t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광주 뿌리산업 전환…평동산단 용접 특화단지 지정

내년부터 5년간 1294억 투입…시설·R&D·인력양성 지원
552개 뿌리기업 AX·DX 선도…차·가전산업 마중물 기대

광주시가 자동차·가전 등 지역 주력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2026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지원사업'에서 광산구 평동일반산업단지 일원이 '용접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돼 지정 고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산업부가 지난 2월 사업 공고를 낸 이후 제안서 평가와 발표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지난 4일 최종 확정됐다.

새롭게 지정된 특화단지는 광산구 평동·월전·옥동·용동·연산동 일원 32만9829㎡ 규모다.

광주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인근 평동일반산업단지 1·2·3단지 전체 611만8000㎡ 규모의 산업단지로 파급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사단법인 대한용접·접합공업협회와 함께 오는 2027년부터 5년간 총 1294억원을 투입해 특화단지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지원사업과 신규 국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마케팅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공동 혁신활동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특히 평동산단에 입주한 552개 뿌리기업이 인공지능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차세대 고도화 접합기술 개발과 용접 품질평가·신뢰성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용접 부품제조 협동화센터와 AI 접합기술 성능평가·인증센터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산학협력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조선대학교 용접·접합공학과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해 재직자 기술 고도화 교육과 미취업자 맞춤형 교육을 운영,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장부품 자율제조시스템 기술 개발, 전기차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 뿌리산업 공정고도화 지원센터 조성 등 다양한 연계사업도 추진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단순가공 중심의 뿌리산업 구조를 기술집약형 스마트 제조 체계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제조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AI 기반 품질예측 시스템과 공장 자동화 기술이 본격 도입되면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효과는 물론 미래차와 가전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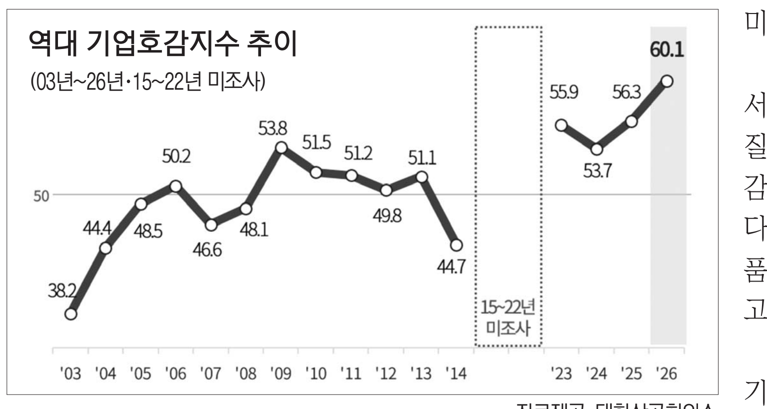
손두영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지역 뿌리산업이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 고도화라는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AX/DX)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기업호감도 첫 60점 돌파…글로벌 경쟁력 '쑥'

▌대한상의, 기업호감지수 조사 발표

국제경쟁력·기술혁신 평가 '상승'
기업 이미지 개선…윤리경영은 과제



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60점을 돌파했다.

경기 침체와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기업의 경제 기여도와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 반면, 윤리경영은 여전히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적됐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6 기업호감지수(CFI)'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기업호감지수는 60.1점으로 지난해보다 3.9점 상승했다. 지난 2003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이자 처음으로 60점대를 넘어선 기록이다.

기업호감지수는 생산성·기술개발, 국제경쟁력, 경제성장 기여, 윤리경영, 기업문화,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 공헌 등 7개 항목과 전반적 호감도를 종합해 산출한다.

세부 항목별로는 국제경쟁력이 66.2점으로 전년대비 6.8점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 친환경 경영(50.7→54.8점), 생산성·기술개발(63.5→67.1점), 윤리경영(44.0→47.1점) 등 순으로 개선됐다.

생산성·기술개발 부문은 67.1점으로 전체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국내 기업들의 기술혁신 역량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반영했다.

반면 윤리경영은 지난해보다 개선됐음에도 47.1점에 그쳐 유일하게 기준선인 50점을 넘지 못했다. 국민들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준법·윤리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에 호감을 느끼는 이유로는 '국가경제 기여'가 4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20.3%), 제품·서비스 만족도(17.3%), 사회공헌활동(7.3%), 친환경 경영(6.0%)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기업에 비호감을 갖는 이유로는 준법·윤리경영 미흡(22.9%)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 보호 미흡(18.6%), 기업문화 개선 부족(17.1%), 사회공헌 부족(17.1%) 등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기업 이미지는 소비 행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6.3%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호감도를 함께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4.6%는 가격과 품질보다 기업 이미지를 우선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도 크게 높아졌다. '기업이 사회구성원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85.6%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58.6%, 2025년 74.0%에 이어 2년 만에 27%p 상승한 수치다.

현재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참여 수준에 대해서는 53.5%가 "더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9.4%에 머물렀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이제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며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상의는 신기업가정신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정부·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와도 협력해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양제철소에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 공장

포스코그룹이 광양에 반도체와 우주항공 산업용 '고순도 희귀가스 공장'을 준공했다.

포스코그룹은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에서 산업가스 전문회사인 포스코에어솔루션㈜이 연산 13만 N㎥(노말 입방미터)의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생산공장은 제철소 산소공장에서 추출된 희귀가스를 주원료로 이를 고순도화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반도체와 우주항공 분야에 활용된다.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반도체 및 우주항공용 핵심소재의 국산화가 가능해졌으며 국가 첨단산업 전반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하게 됐다.

연산 13만 N㎥의 고순도 희귀가스는 국내 반도체 시장 전체 희귀가스 수요의 52%를 자급할 수 있는 양이다. 제철소 산소공장에서 추출한 원료가스를 희귀가스로 정제해 제논(Xe), 크립톤(Kr), 네온(Ne)을 생산하며 이들 희귀가스는 반도체 노광·식각 공정을 비롯해 우주항공, 의료 등 첨단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장인화 회장은 "글로벌 소재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와 우주항공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를 우리 기술로 직접 생산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고순도 희귀가스 공장 준공을 계기로 향후 철강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특수가스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포스코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철 인프라와 가스정제 기술력을 결합해 철강, 이차전지 소재 생산에 필요한 산소와 질소 공급은 물론 고부가가치 희귀특수가스 시장에도 적극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지역 학생과 교사 등 7200여명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후원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

농협은행 광주본부, 학생·교사 야구관람 지원

시교육청 주관 '야구장 가는 날' 후원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최근 광주지역 학생과 교사 등 7200여명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후원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제동행 및 교육복지 프로그램인 '야구장 가는 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친구들과 교사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아 응원전을 펼치며 프로야구를 관람했다.

행사 운영에는 NH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 14기 단원들이 참여해 관람객 안내와 현장 지원 등을 맡으며 원활하고 안전한 행사 진행을 도왔다.

임철현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은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aT, 식량원조 쌀 출항…올해 6개국에 5만t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6일 울산항에서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 이하 FAC)에 따른 2026년 해외원조용 쌀 첫 출항을 시작으로, 올해 총 5만t 규모의 식량원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의 식량원조 물량은 총 5만t으로, 기후변화와 분쟁 등으로 식량 위기를 겪는 국가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에는 군산항, 목포항, 울산항을 통해 총 4만 9040t의 쌀을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예멘, 방글라데시 등 5개국에 지원한다. 올해 처음 지원 대상에 포함된 이집트에 960t을 지원할 예정이다.

aT는 2018년 정부의 식량원조협약 가입 이후 식량원조 업무를 위탁받아 전 과정을 전담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식품부와 공사가 FAC를 통해 전 세계 식량난 해소를 위해 지원한 쌀 규모는 누적 55만 t에 달한다.

나주=조함천 기자